채플 과제 ‘고양이를 부탁해’ 를 보고

IT융합자율학부 201814003 김은정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과 저의 삶은 분명히 다른 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스물이 그리고 제 서른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기에 그들의 나이가 서른이 되어 무엇을 할까 상상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입사했던 혜주는 아마 서른이 되어서 성공이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처절하게 생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공은 했지만, 감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랑했던 쌍둥이 비류와 온조는 가판에 액세서리를 팔던 행동을 보아 액세서리 장사를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일을 찾아 떠났을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라는 풍파에 성격이 무디게 변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던 지영이는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으니 미래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원하던 유학길에 올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그릴 수도 혹은 친구와의 우정을 밝게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들의 미래는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우정을 거친 풍파처럼 꺾어 내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미래처럼 우리의 미래도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때론 어떤 상황이 혹은 말들이 사람을 바꾸고 주변을 바꿉니다. 이 영화는 제게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의 대사 중 태희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던 시인에게 태희가 했던 대사. “ 누군가가 너를 떠난다고 해서, 널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에 익숙지 않습니다. 어떤 이별이든 슬프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나가는 세월은 더욱이 야속하다는 의미는 나이와의 이별이 그만큼 슬프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제 나이의 앞자리가 2로 바뀐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몸은 성인이 되어가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는 모든 이들의 스물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거친 환경 혹은 커다란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생각해볼 법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스물은 해처럼 밝지만은 않고 달이 없는 초하루처럼 어둡지만도 않습니다. 이 영화를 찾아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네이버 댓글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클릭해 들어가면 네이버 리뷰중 2004년 때 제 나이의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느낀 감각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스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스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고민해볼 법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금은 현실적이고 다른 면으로는 희망적이게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이번 영화에서 제가 생각했던 등장인물들의 미래였던 것 같습니다.